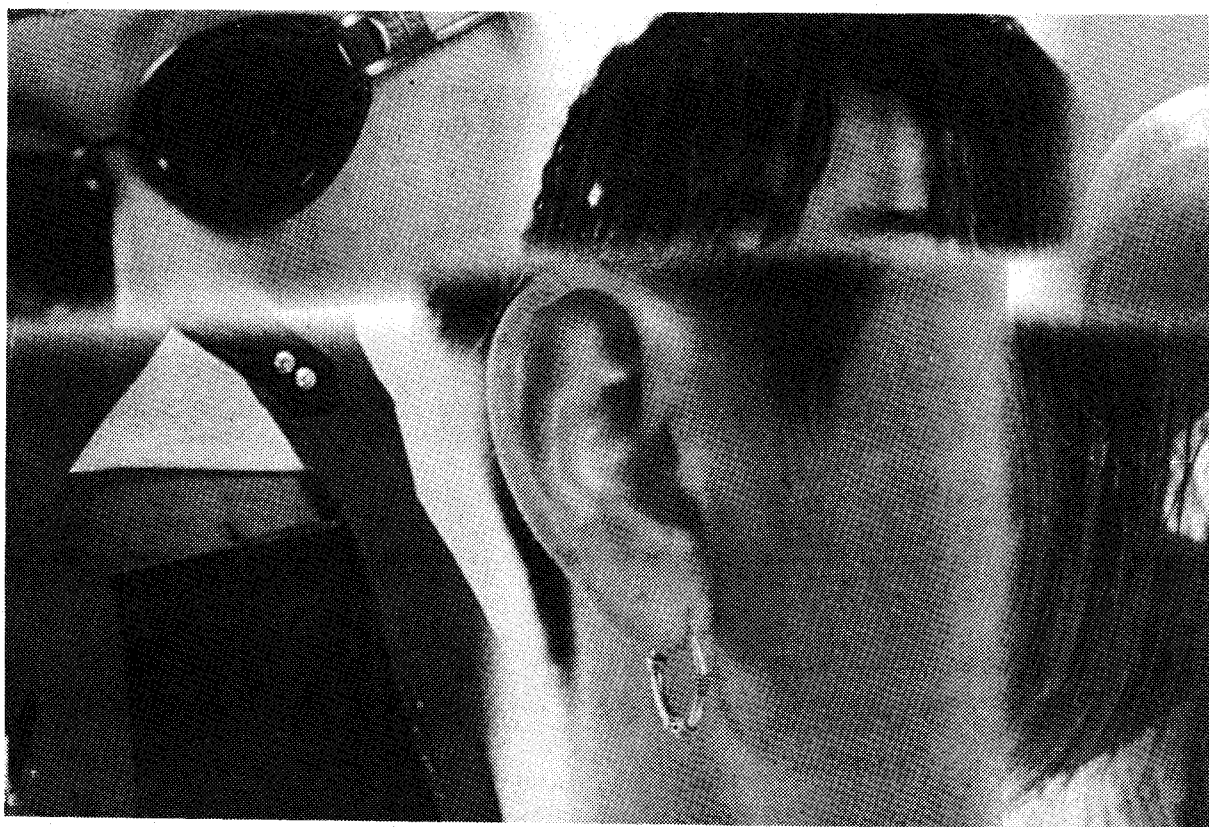


1997년 9월 8일 월요일

□ 한국의 청소년 하위문화 점검

# 권위적인 질서를 거부하는 저항의 몸짓...

억압구조 탈피위한 행동  
저항 수단인 하위문화 형성



청소년 집단의 하위문화 속에서 어떤 거창한 이데올로기나 조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과잉담론일 수도 있는 청소년 하위문화는 분명히 기성사회의 질서와 도덕, 억압과 통제에 대한 일방적인 저항의 몸짓이다. 지난호에서 검열과 하위문화 간에 이뤄지는 관계를 살펴본데 이어 청소년들의 하위문화적 접근을 주목해 보자. <편집자>



펑크 스타일은 일부러 추하게 만든 괴기스러운 복장으로 구성된다. 이는 아름다움이라는 기존의 미 의식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다. 권위적인 통제와 질서에 대한 저항이 이들 하위문화 그룹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왜 저항이 얘기되는가...

오토바이족들은 자신 앞에 놓여진 바리케이드를 뚫고자 합일가? 마치 60년대 영국에서의 모드(Mods)족과 같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그들의 문화는 중산층의 가족주의와 성공지상주의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들 청소년 문화는 흔히 청소년 하위문화라고 불린다.

하위문화란 현대사회에서 주로 청소년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지배문화 혹은 사회의 중심계층 문화로부터 이탈된 현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집단적 해결책으로서 문화적 반항, 개혁운동, 정치적 호전성, 비행성 하위문화집단들을 의미한다.

즉 하위문화란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차별화한 것이다. 여기서 지배문화란 지배계층의 문화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서 있는 집단이 강요하는 문화상품을 그대로 소비할 수 밖에 없는 피지배자층에서 볼 때 정치적인 권력만큼이나 강력한 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지배문화의 획일적 강요에서 오는 압박감과 자율성 상실은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과도한 학교공부와 입시준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한국에서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어느 계층보다 심하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은 획일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위계질서에 대한 순응, 결과우선주의와 폭력에의 순종으로 일상적인 억압과 획일적인 통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학교 밖 거리에서조차 '금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억압구조에서 탈출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화폐적 대응이나 저항의 수단으로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만의 차별화된 하

위문화는 자신들이 처한 삶의 조건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미에서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를 신세대 혹은 X세대, 심하게는 비행청소년집단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청소년들이 지니는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의식을 의식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저항에서 스타일로

서구적인 의미에서 청소년 하위문화는 근검과 절제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청교도적 생활과 파시즘적 소비욕구 사이의 모순 위에서 형성되고 실천된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제도적 모순의 해결이 주로 소비와 대중문화에의 몰입에 의해 해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하위문화가 지닌 새로운 추구, 젊음, 저항의식이 지속적으로 주류소비문화에 편입당한다는 현실도 이들이 지니는 저항의 에너지를 말살시키게 된다.

레게음악이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 청소년들에게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백인위주의 사회질서에 저항하는 하위문화적 수단이었다는 점. 그리고 펑크록이 중산층 이하의 백인 청소년들의 기성사회에 대한 불만과 거부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음악이 자신의 삶의 조건과 생활체계로부터 떨어져나온다는 데서 저항의 의미는 퇴색된다. 레게와 펑크록은 단지 다양한 대중음악 중에 하나의 장르 내지는 스타일로 굳어짐으로 인해 그들이 지니게 되는 의미 체계는 상실되고 사회의 지배적 문화 중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는 하위문화가 지니는 소수집단만의 정체성이 대중적인 소비구조 속에 하나의 스타일로 유포됨으로 인해 애초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청소년 하위문화가 보여주는 현상도 크게 다를바가 없다. 오히려 상징적인 수준에서조차 자신만의 문화를 형성해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청소년 집단의 하위문화는 도파나 대리만족으로 특징지어

하위문화 스타일을 구성하는데 의상과 음악은 주된 요인이 된다. 쉽게 볼 수 없는 의상과 장신구(위) 그리고 대중스타(아래)에 대한 환호는 하위문화를 기존의 주류문화와 차별하는 좋은 주제가 된다. 그러나 대중스타로 인한 대리만족은 상징적인 수준에서의 실천일 뿐이다. <사진: 월간 junior>



진다. 유독 대중음악에 심취하는 청소년의 특징은 자신만의 상상적 공간으로 빠져드는 행위로 구체적이지 않은 대상을 구체화 하는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적 공간의 구축이 저항적 실천의 의미를 지니기는 힘들다.

의미있는 실천의 장으로서 하위문화...

또한 서태지와 같은 특정 가수나 음악적 스타일을 추종함으로써 저항을 의도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한 위반이 아니라 동일시를 통한 대리만족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형태로 재생적으로 표출되었던데 비해 한국의 청소년들의 랩, 힙합, 록은 상업적인 목적에서 생산되는 주어진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배적인 문화소비구조 속에서 제공된 것이며 자발성이나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한국의 청소년 하위문화는 기성세대와 학교로 상징되는 억압에 대한 저항내지는 탈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실천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보여주지 못한다. 일 상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이탈 혹은 저항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에서 대리만족과 동일시에 그치는 현상은 미메시스가 기획한 책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에서도 드러난다. 이들 책은 하위문화가 지니는 이유있는 저항의 논리를 빌어 자신들의 무정부주의적인 감성을 덧씌운 것에 불과하다. 이는 오히려 상업적, 혹은 감시의 목적에서 유포되는 '신세대' 담론의 전략에 말려들 뿐이다.

정확하게 자신이 처해 있는 억압의 정도와 삶의 조건을 인식한 바탕위에 서 기획되고 조직되는 하위문화가 획일화되고 통제 일색인 현재의 문화구조를 돌파해가는 하나의 의미있는 실천이 될 것이다.

<학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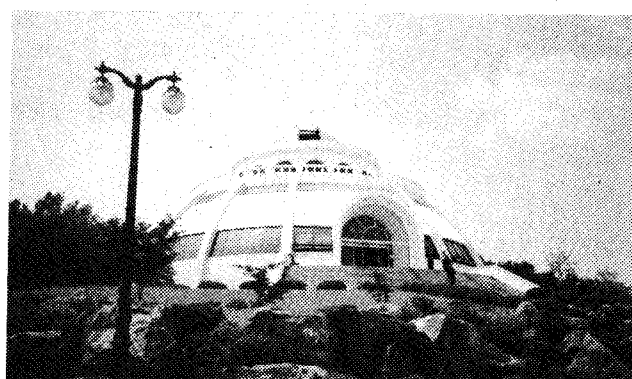
시리즈—경희의 유산을 찾아서

⑫ 경희천문대

오일환, 이연의

(중앙박물관 연구실)

예로부터 망망한 우주 속의 별을 관측하는 목적은 국가의 길흉이나 일월오성(日月五星)의 운행을 알기 위함이었다.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은 단군때부터 사용되었던 천문대이고 경주의 첨성대는 신라때(647), 개성의 만월대 서쪽의 첨성대는 고려때 건립되었다. 창경궁에는 소간의대(소간의대)와 광화문의 관천대(1688)가 남아 있으나 대간의대(1434)나 경희궁에는 개양문 밖에 있던 관천대(1702)는 안타깝게도 사라졌다.



▲ 수원캠퍼스 천문대학 전경

천문에 관한 기록은 석각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나 '동국문헌비고', '조선실록' 등에 잘 나타난다. 대부분 변광성(變光星) 즉 객성(新星, 新星, 超新星, 彗星)에 관한 기록이다. 유럽과 중국에도 초신성에 관한 기록이 많지만 우리의 선조는 빛이 변화하는 별을 최초로 발견한 독일의 슈미트보다 4년 앞선 1592년에 발견하였고 17세기 초에는 초신성의 광도곡선을 완벽하게 그려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수원캠퍼스의 우주과학에 서는 기린자의 근처에 있는 일출형 쌍성 식상형태의 변광성 새 별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자연대 뒷편 산꼭대기에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국내 대학 중 가장 큰 30인치 반사 망원경을 가진 천문대가 있다. 여기에는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유일의 복합전시관과 실험실을 갖추어 학문과 인생을 바로 보는 안목을 키우며 올바른 인생관, 우주관을 형성할 수 있는 장도 되고 있다.

신 간 안 내



네트워크 트렌드

경희 정보사회연구소(황승연 교수와 5명), 삼성 경제연구소 공저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등 정보기술이 사회와 개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컴퓨터 네트워크가 미치는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새로운 현상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확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부족이 그 이유이다.

이 책은 1996년 10월, 경희대학교와 삼성 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보 네트워크의 확산과 사회변화' 학제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학문적 연구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도된 학제간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활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유익한 시각과 논의를 담고 있으며, 젊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컴퓨터 네트워크가 미치는 긍정 혹은

## 우리의 21세기, 목표는 세계속에 있지만 방법은 사람속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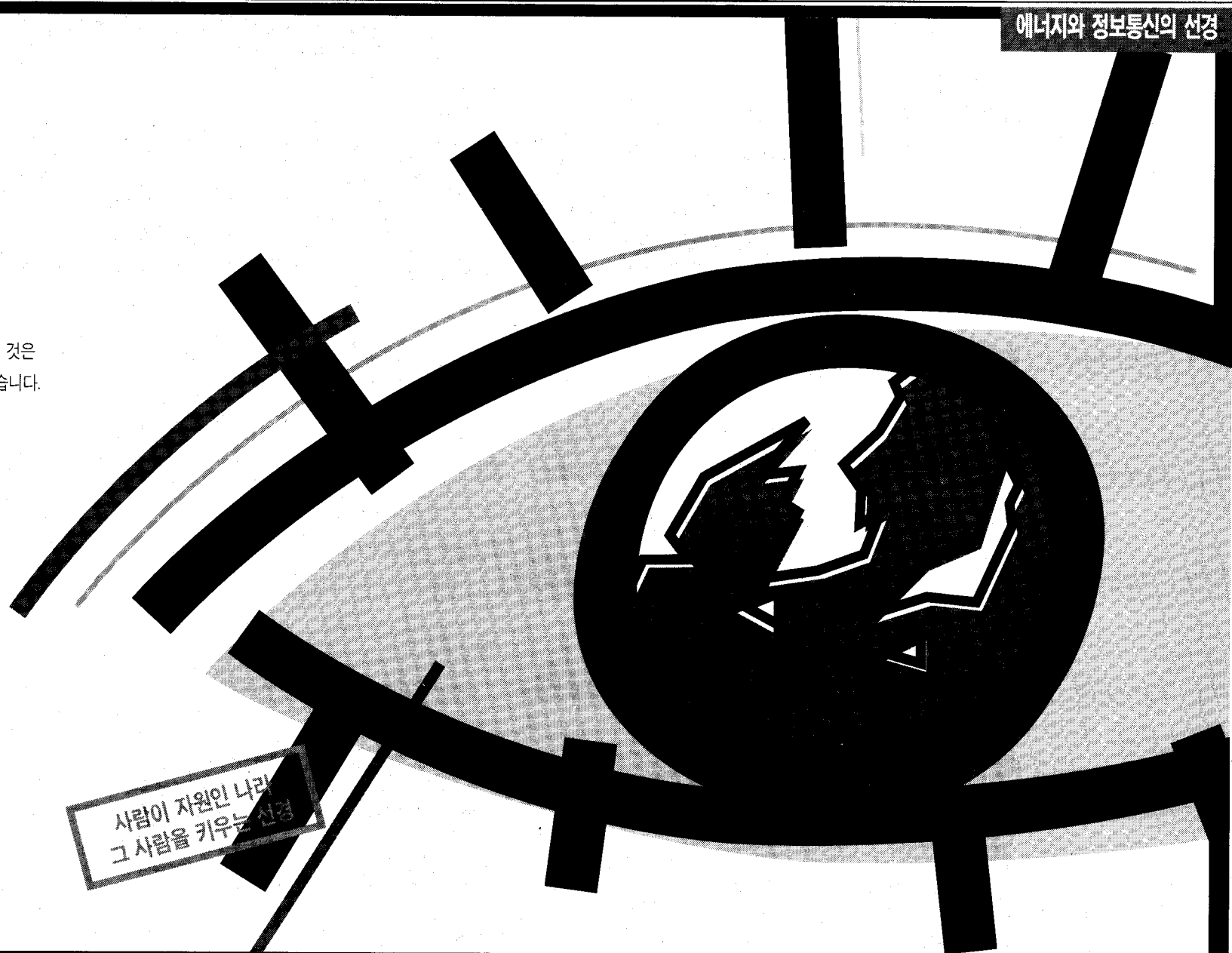
세계화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당장 실천해야 하는 생존조건입니다. 그런데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세계에 눈을 돌리는 것은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지만 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 방법은 우리 속, 즉 사람 속에 있습니다.

선경은 이렇듯 가장 소중한 자원인 사람개발을 통해 세계화를 준비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신입사원 해외연수를 시작한 일. 예멘 등 세계 곳곳에서 우리 기술로 석유를 개발해 오는 일. 중국과 동남아에서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를 추진하는 일. 세계 최초로 CDMA통신서비스를 상용화한 일. 선경이 키운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자원으로 미래 대체에너지에서부터 정보통신의 결정체인 이리듬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땅에 새로운 자원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선경. 선경그룹은 유공과 SK Telecom을 중심으로 우리의 21세기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대한민국. 그 사람을 키우는 기업, 선경.

SUNKYONG  
선경그룹  
http://www.sk.co.kr/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선경